

건강증진과 영양

책임연구원 / 이 화 영, 최 병 순

재해율은 산재예방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자료를 활용하여 산재규모를 파악함에 따라 신뢰도가 낮고, 산재발생 원인 분석 등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1999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미국식 산재통계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2001년부터 산업재해시험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하였는데, 해마다 표본설계방법, 표본의 크기 변경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계 활용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산업재해시험표본조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대로 수행 될 수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단계별로 점검이 필요하였다. 또한 산재통계의 국제비교를 위하여 ILO의 최근 연구동향 및 다른 나라의 산재통계 생산 기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산재통계 작성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여, 신뢰성 있는 산재통계 생산을 위해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산업재해통계 작성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현재 산업재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생산되고 있는 산재통계

에는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조사들은 생산주체가 서로 다르고 조사방법도 상이하여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며, 정부의 공식통계로는 「산업재해현황」이 활용되고 있다.

「산업재해현황」은 5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성되며, ②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일지라도 모든 사고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지는 않으며, ③ 합의된 직업관련성 질환만을 직업 관련성으로 인정받아 산재통계에 집계되며, ④ 요양신청서 기재내용이 재해자 보상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재해원인을 파악하기에는 내용이 불충분하며, ⑤ 산재통계는 4일 이상 요양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특정 연도의 산업재해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다른 나라의 산재통계와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

제공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